

# 장백산천지

제 347 호

2019 년 3 월 4 일

월요일

## 대륙 유람객: 전세계 도처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다

[밍후이왕] 2019 년 2 월 17 일, 새해가 시작될때 타이완 화롄파룬궁수련생들은 기차역광장앞에 모여 단체 연공을 개최했다. 그리고 즐거운 음악 당고를 표현해 나라가 태평하고 인민이 평안하기를 기원했다. 상서롭고 평화로운 연공 음악이 울려 파룬궁 수련생들이 5 조 공법을 전시하기 시작할때 외국 유람객들과 관광객들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녹화촬영을 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민중들과 교담할때 중국공산당의 파룬궁박해진상을 말했고 동시에 진상을 똑똑히 아는 민중들에게서 장쩌민을 고소 하는 지지서명을 징집했다.

정거장앞에서 한 대륙의 큰 유람단체를 거느린 가이드는 파룬궁수련생을 보자 건너와 진상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제가 시범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륙유람객들은 따라서 함께 진상 자료를 가질것입니다. 결과 이 유람단체의 모든 유람객이 거의 사람마다 파룬궁진상자료를 가졌다. 광저우(广州)에서 온 한 유람객은“어느 나라에가 유람하거나 외출할때면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동시에 파룬궁수련생의 정신에 탄복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또“빨리 파룬궁을 평판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사람에게 유익합니다.”라고 말했다.

1999 년 7 월 20 일, 중국공산당과 장쩌민 집단은 모든매체를 조종해 파룬궁에 먹칠하



▲타이완 파룬궁수련생은 유람객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고 있다.

고, 거짓을 만들어 파룬궁을 모함했다. 그리고 전체 국가기관을 동원해 ‘진선인(真善忍)’을 신앙하는 파룬궁수련생에게 멸절성 박해를 실시해 심지어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해 폭리를 얻었다. 이는 파룬궁수련생의 신앙자유를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도덕원칙과 정신가치에 대한 회

멸이다. 이로인해 전세계파룬궁수련생들은 평화롭고 이성적인 반박해, 진상알리기 등 활동을 시작했다.

해외 파룬궁수련생은 관광지에서 전시판을 걸고, 진상을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고, 공법을 전시해 이미 세계 각지역의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특별한 경치가 됐다.◇

## 종교 자유의 날에 대한 생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1 월 16 일을 종교 자유의 날(National Religious Freedom Day)로 선포하고, 미국에 국내와 세계 각지의 신앙 자유 전통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종교 신앙의 자유 권리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직결되며, 진리를 추구하는 기초이다.’ ‘세계 인권의 날’ 70 주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신앙 자유를 중시하고 있어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현재 반(反) 신앙적 형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하면서 언론자유와 신앙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 2017 년에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신앙 자유에 관한 연방 법률의 강력한 보호에 총력을 기

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세계 각국 정부가 다양한 신앙에 대해 더 크게 포용하도록 추진했다. 1 월 16 일 성명에서 트럼프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독재 정부와 테러단체들로부터 박해 받는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 게일 만친 (뒷면에 계속)

## 루마니아 정신건강 박람회에서 파룬따파가 주목받다

[밍후이왕] 2019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시내 팔라툴루이(Palatului) 전시홀에서 3일 동안 의료정신건강 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신체 및 정신 의료 상품, 건강 상품, 기타 상품이 전시되었으며, 상서로운 파룬따파 공법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파룬따파 부스는 전시홀 1층에 설치되어 파룬궁저서와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매일 오후 4시에 무대에서 파룬궁 공법을 시연했다. 두 중국인 상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파룬궁 수련생들의 공법 시연을 지켜보았고 현장에서 연공을 배웠다.

민중들은 연공하면 평화롭고 편안하다고 말했다. 한 부인은 수련생들이 연공할 때 강렬한 에너지 마당에 놓인 느낌이 들었다고 하며 꼭 연공장에 가서 단체 연공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연공 시연을 본 많은 사람은 일부러 부스에 가서 어떻게 연공을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고, 파룬궁 서적을 샀으며,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게 되었다. 3일 동안 박람회에서 만여 명이 파룬궁 자료를 받아갔다. ◇



▲ 많은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파룬궁 진상 부스 앞에서 파룬궁을 요해하다

(앞면의 계속) (Gayle Manchin)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000년에 설립된 이래,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보고서에서 계속 언급해왔다고 밝혔다. “파룬궁 수련자들을 감금, 고문, 성적침해, 인체 실험, 강제 장기적출로 교란한 중국공산당 당국의 이런 잔인한 행동은 국제인권기준과 더욱 광범위한 행위 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성(人性)의 가장 근본을 더욱 침식(侵蝕)했다.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정부가 주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이다.”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한 중국공산당의 죄상에 대해 유엔과 미(美) 국무부, 미 의회 등이 쓴 여러 건의 인권보고서에 이미 수년째 올라가 있다. 최근 아시아·유럽·호주·북미의 여러 나라 의회도 잇달아 결의안을 채택하고, 파룬궁 수련생 등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중국공산당의 만행을 규탄하여, 박해 제지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염원으로 되었다. 유엔인권 연례보고서는 해마다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을 규탄하고 있지만,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극단적으로 사악한 비극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중 주된 원인은 바로 중국공산당이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모함하고 엄밀하게 정보를 봉쇄하여, 확실히 많은 세인을 현혹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파룬궁 수련생들이 꾸준히 진상을 알려 애초 중국



▲ 2018년 6월 20일, 파룬궁수련생은 미국수도 워싱턴 DC에서 반 박해 집회행진을 거행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주석 게일·만친(盖尔·曼钦)이 집회에서 발언했다.

공산당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민중들이 점차 진상을 알고 용감히 나서서 반(反) 박해에 성원하고 있다. 사(邪)가 정(正)을 이길 수 없듯이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가면 정의는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제지하는 것은 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자 ‘종교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범이나 앞잡이들을 막론하고 모두 인간사회의 법률, 도덕법정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많은 세인이 정의와 선량함을 가지고 이 잔혹한 박해를 하루빨리 끝내고, 신앙 자유라는 이 기본적 인권이 다시 보장되기를 기원한다 ◇



## 서울 새해 첫 9일 학습반, 신수련생이 체험을 나누다

[밍후이왕] 한국 서울 천제서점(텐티박스)의 2019 년 첫 9 일 학습반이 1 월 31 일에 끝났다. 참가한 신수련생들은 학습반에 참가한 체험을 교류했다.

### 대법을 만나 인생의 참 뜻을 찾다

1997 년 경제 위기 당시 강찬식 씨는 전 재산을 잃었다. 당시 강 씨는 심신이 고달팠고 심지어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는 이후에 깨달았다. ‘어쨌든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내가 집착할 게 있을까?’

강 씨는 책 읽기, 등산, 운동, 교회에 가는 것으로 기운을 차리려 했고 인생의 참뜻을 찾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으려 했다. 강 씨는 생각했다. ‘나는 우주의 먼지보다 못하지만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몸이 건강해지고 우주에 동화되면 좋겠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집 인근 단지에서 운동하던 중에 우연히 파룬궁수련생이 연공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파룬궁 소개 전단을 보고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강 씨는 천제서점에 갔고 그곳에서 ‘파룬궁’ 책을 보라는 추천을 받았다. “다 본 후 저는 인생의 답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 후 천제서점의 9 일 학습반에 참가해 파룬궁을 배웠다. 9 일 학습반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사부님 말씀이 그의 내심 깊은 곳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하면 신체가 정화되고 나쁜 독소를 제거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는 심성이 따라야 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하고 고생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련해 보니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인



▲신수련생이 파룬궁 제 5 장 공법을 배우고 있다.

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도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수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는 예전에 늘 신선이 되려는 꿈을 꾸었다. “지금 저는 파룬궁을 수련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후 여가 시간에 이곳에 와 연공을 배우고 법을 많이 읽고 수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해지고 예뻐졌으며 거대한 에너지를 느끼다

김정기 씨는 이전에 불교, 기독교를 믿었고 다른 기공도 연마했지만 모두 마음이 끌리지 않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부평공원에서 운동하다가 한 여성 파룬궁수련생이 혼자 연공하는 것을 보았다. “저는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연공 동작이 춤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았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나도 그녀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그는 대법 소개 전단 한 장을 가져갔고 그때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김 씨는 부평공원에서 이 수련생을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연공을 견지했다. 1 년 반 동안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깊은 계발을 받았다.

김 씨는 수련 후 몸이 아주 건강해졌다고 밝혔다. 이전에 아주 수척했는데 지금은 체중이 정상으로 회복됐고 안색도 좋아져 다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광택이 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파룬궁은 건강해지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경지가 있어요”라며 “수련의 각도에서 심성 수련에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수련 과정 중에 그는 많은 신기함을 느꼈다. “제 5 장 공법을 연마할 때 입정(入定)하는 순간 저는 자신이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부평공원에서 함께 연공하는 수련생이 하루도 빠짐없이 연공을 견지한다고 칭찬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

러 나간 장소에서도 강한 에너지를 느꼈어요.”

김 씨의 영향으로 아내도 파룬궁 수련에 흥미를 느꼈고 이번 9 일 학습반에 함께 참가했다. 처음에 아내는 하루만 참가해 보려고 했는데 매일 견지했다. 그의 아내는 말했다. “9 일 수련을 통해 예뻐졌어요. 이전에 아마 체형이 바르지 않았는지 늘 허리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체형도 교정된 것 같아요.”

### 진선인에 동화되어 행복 느껴, 조급하고 불안하던 데에서 평온하고 편안해져

강인순 씨는 작년 7 월 관악산에 오를 때 파룬궁수련생이 그곳에서 연공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파룬궁과 인연을 맺었다. 두 달 후 그녀는 9 일 학습반에 참가하고 수련을 시작했다. 9 일 학습반에 한 번 참가해서는 부족하다고 여겨 두 번 더 참가해 이번이 세 번째다.

“수련한 후 온몸이 아주 가뿐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연공한 후 몸에 아주 미묘한 느낌이 들었고 아주 좋았어요”라면서 그녀는 “노력을 얼마 들이면 그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라고 말했다.

강 씨는 법 읽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시간만 있으면 대법 책을 보았다. 지하철을 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사부님의 제 30 번째 설법을 보고 있다고 했다. “늘 법을 배우고 매일 진선인에 동화되는 느낌이 아주 행복합니다.” ◇

# 착하고, 견인하며, 정기로운 김유봉(金宥峰)선생을 회억하다

[망후이왕] 김유봉은 전 무단장(牡丹江)사범학원 체육계 강사로 조선족이다. 파룬궁수련을 견지하고 ‘진선인(真善忍)’을 신앙해 착하고, 성실하며, 겸손하면서도 상쾌한 사람으로서 사람을 도와주기 아주 즐겼다. 동사, 친구, 학생, 이웃관계, 모든면에서 아주 융합됐다.

김유봉은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눈은 맑고 투명했으며 아주 소질이 있고, 조용했다. 그는 ‘진선인(真善忍)’신앙에 대해 아주 견정했다.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박해를 시작한후 김유봉은 근 10년간 비인간적인 구타를 받아 원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3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09년에 박해로 세상 떠났다.

## 마음속으로 부터 우려나온 선량

1999년 9월, 김유봉은 청원해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한 이유로 직장에서 공직을 해고 당했고 그후 3년 불법노동교양을 선고받았다. 무단장 노교소에서 김유봉은 참혹한 박해를 받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터 우려나온 순선, 무사와 견인으로 많은 죄인과 옥경을 감동 시켰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공의 텔레비, 신문의 파룬궁에 대한 모독 선전을 믿었기에 파룬궁수련생의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죄인들은 힘을 가해 김유봉을 박해했는데 그에게 비행기 몰기(한가지 고문), 혹독하게 때리고, 꼬집고, 팔을 비틀고, 옥줄은 딱딱한 의자로 김유봉의 뼈를 힘껏 내리쳐 땀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마음이 떨려 참아 그 누구도 지켜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것은 정말 뼈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하지만 김유봉은 줄곧 한마디 소리없이 움직이지도 않은데다 표정마저도 변하지 않아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했다.

김유봉은 심각한 박해를 받아 경상적으로 매를 맞고, 욕을 먹었다. 매일 강박으로 아주 긴 시간을 앉아있게 했으며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는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한번은 그가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가려고 할때 다른 사람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어 침대위에 올려놓은다음 조용히 나갔다. 후에 옥줄은 감개하면서 방안의 많은 사람들과 말했다 :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도 그 누구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보는척도 하지않더니 김유봉만이 주어 올려놨다고 했다. 후에 그는 잡공들과 “파룬궁수련생은 진짜 우리랑은 다르다고 의론했다. 그는 김유봉에 대해 아주 존경하고 탄복했으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인상도 많이 좋아졌다. 듣는말에 의하면이 옥줄은 도박할때 한판에 백만위안의 금액을 걸었다고 했다. 누구나 다 업신여기기에 그로하여금 탄복하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유봉은 이러한 큰 박해를 받았으나 도리어 아무런 원한도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터 우려나와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잘 대했다. 원래 양심을 잃었던 범인들도 진감받고 감동돼 노교인원들 모두 김유봉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고 의논하면서 그를 아주 존중하고 탄복했다. 후에 옥경들도 주동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 하지 않았으며 그들도 뒤에서 이 젊은이는 진짜 의지력이 있다고 의론했다.

과거에 노교소는 노교인원이 한 마디의 아니란 말을 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은 오히려 그런 환경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고, 그들의 선량하고, 견인불굴의 정신경계는 감동받지않을수 없게했으며 모든 사람들을 감동 시켰다.

## 견인과 정기인사

2003년 10월 25일, 김유봉은 또다시 체포돼 불법 징역형 13년의 선고를 받고 무단장감옥에 감금돼 박해 받았다. 무단장감옥에서 김유봉은 작은

방에 갇혀 박해 받은적이 있었다. 그안은 아주 추웠지만 그는 자신의 추위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남에게 줬다. 작은방에 감금된기간에 나서서 악경의 악행을 제지 시킨적도 있다. 당시 옥경은 한무리 범인을 끌고 감방에 들어와 한 파룬궁수련생을 혹독하게 때렸다. 김유봉은 즉시 일어나 큰 소리로 “사람을 때리지 못한다. ‘파룬따파 하오! (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제지시켰다. 따라서 함께 불법감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높은소리로 “사람을 때리지 못한다. ‘파룬따파 하오!’”라고 웨쳤다. 옥경은 파룬궁수련생들의 정기를 보고 놀라 멍하고 서있다가 범인들과 함께 도망쳤다.

무단장감옥에서 김유봉은 ‘진선인(真善忍)’신앙을 견지해 혹독하게 매 맞기, 작은방에 가두기, 얼귀 놓기, 밥을주지않아 굶게 하기, 야만적인 주입, 고압전기로 생식기를 충격하기 등 옥경들의 강제적인 전향(파룬궁수련을 포기하라고 강박)박해를 받았다.

김유봉은 박해받아 생명이 위독해 졌지만 감옥에서는 그가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풀어 주지 않았다. 후에 가족들의 강열한 요구와 견지하에 2008년 단오절 전야에야 겨우 보석치료 수속을 해 주었다.

2009년 1월 21일, 44세 밖에 안된 김유봉선생은 긴급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원한을 품은채 세상떠났다. 한 얻기 어려운 좋은 선생님이 이렇게 중국공산당에 의해 생명을 빼앗겼다. ◇



▲ 김유봉 박해 전/후